



법에서의 정의

상대적 정의인가? 보편적 정의인가?

글 조영길

인간의 내적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정의는 법의 핵심적 이념이다. 그러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쉽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는 연구 과제이다. 오늘날 정의를 이해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대성과 이해관계성(당파성)에 주목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성과 타당성에 주목하는 견해이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당파성적 정의 개념이 익숙하다.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자유시장체제에서도 이 정의관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 철학적 측면에서 이 정의관을 체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념은 사회주의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도 철학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정의관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성경적 정의관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살펴 보고자 한다.

상대적 당파성 정의관

상대적 상대성 정의관은 정의를 시간과 공간, 문화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은 인간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들은 법에 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정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정의는 없다고 여긴다. 유물론과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상대적 정의관에 이르게 된다. 태초에 존재한 물질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 생명체들로 진화했듯,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진 정의 역시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정의를 담고 있는 철학, 윤리, 종교, 법률 등은 그것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인 당파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당파성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관에 의하면, 지켜 마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보편적인 정의’나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당파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혹 보편적 초당파적 정의관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의관이라고 비난한다. 대신 소수와 다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별하여 다수의 가난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정의관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계급주의 철학적 신념을 가진 상당수 교사들에 의해서 말이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의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장차 무엇을 하려는가 물으면 “법률가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 이런 정의관에 영향 받는 법률가들도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더 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굳이 이러한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많은 건 정의이고, 손해가 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 증대를 마땅히 추구할 가치로 여기는 것, 정치 활동이 각 정당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당파적 정의관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 당파성 정의관의 폐해

상대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정의관이 옳은 것일까? 이러한 정의를 추구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더 많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이나 손해를 추구하는 것보다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정 기준을 넘어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우리는 ‘탐욕’이라 하여 경계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한 이익만이 정의로운 것이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의 이익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강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불의한 이익은 어떠한가? 약자의 거짓말, 폭력, 파괴, 무리한 요구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이익 충돌은 물론, 이를 관철하려는 힘의 대결은 필연적이다. 맹자가 양나라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애기다. 혜왕은 인사말 겸,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국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무슨 이익 될까를 기대하는 양나라 혜왕에게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하필 리(이)를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義(의)를 뒤로

가난한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나 그들의 불의한 탐욕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탐욕까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혼동시키는 것이 상대적이고 당파적인 성격이 강한 정의관이다.



하고 리(이)를 먼저 하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 이익만을 말하는가 질책하며(何必曰利),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하면 국가 공동체는 이익 충돌로 인한 싸움으로 위태로워 진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평화는 사라지며 힘 있는 자의 유익만 실현되는 불의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계급투쟁주의 역시 상대적 당파성적 정의관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소위 다수 약자들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소수 강자나 부자에 대해서는 강압과 폭력 수탈 등의 실력 행사를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지난 세기 역사를 통해서도 계급투쟁주의의 정의 실현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소련의 스탈린 2,000만 명 학살, 중국 모택동의 1,000만 명 학살,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의 2~300만 명 반동세력 학살

등 반대세력에 대한 대량 학살이 혁명 과정에서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자유시장경제에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업주의 최대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자들의 가난과 고통은 외면한 채 개인의 탐욕을 정당화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공동체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정의관의 회복이 필요하다

정의는 이해관계인 당파성과는 다른 것이다. 정의는 옳고 그름, 정당과 부당의 구별 문제다. 곧, 타당성이 정의의 핵심 개념으로, 타당한 가치와 기준은 모든 인간의 양심을 울린다. 인간 본연의 양심은 시대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핵심 개념은 시간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성을 가진다. 구체적인 표현 형태나 존재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주류 법학이 추구하는 정의는,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보편 타당한 가치와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 있다. 모든 사람은 옳고 바른 것, 정당하고 합당하며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정직, 합리, 공정 등의 가치를 타당하게 여긴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이 올바른 정의관이다.

앞서 말했듯, 가난한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나 그들의 불의한 탐욕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수 약자의 입장은 무엇이든지 선하고 바르다는 주장은 그럴듯하나 거짓말이다. 그들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 가난한 약자는 공홀과 자비의 대상으로,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탐욕까지 도울 수는 없으며 구제의 대상이 정의의 기준일 수도 없다. 이를 교묘하게 혼동시킨 것이 상대적 당파적 정의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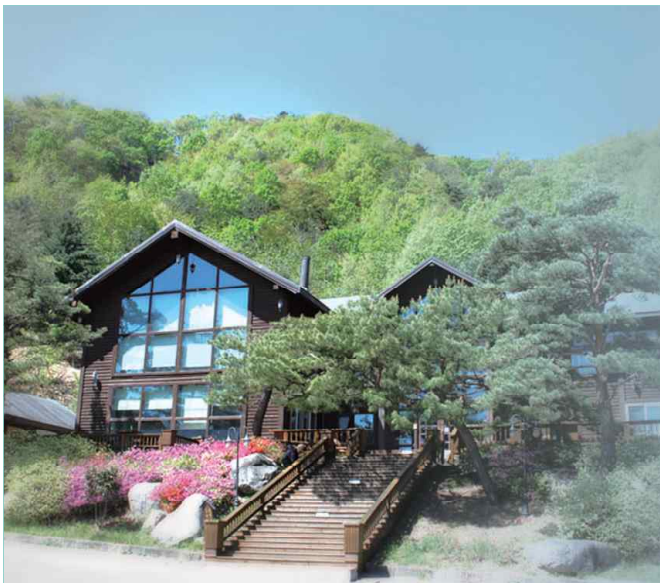
성경도 가난한 자의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고 수 차례 언급하고 있다(레19:15, 출23:2,6).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간에 불의한 유익, 즉 탐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로운 이익이라면 강자나 부자의 것이라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소유의 많고 적음, 권력의 유무 등이 정의를 나누는 기준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정의는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인간은 물질의 이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파적 정의관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왜곡하는 그릇된 정의관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초당파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와 기준을 진리라고 부른다. 혹은 원칙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사40:6,8)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보편적 타당한 정의를 지키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 안에서 자제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 결과 힘이 아니라 타당한 정의가 지배하게 되어, 이익에 대한 대결과 싸움이 사라질 수 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이 사람들에게 잘 심겨져서, 국가 사회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며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노동정책자문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노동법 쟁점 해설(공저, 1998)』,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I, II(2011)』이 있다.



삶 가운데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 후원요청

지난 10년간 수 천 명을 따뜻하게 재워주던 예문실(학생 숙소)에 난방 공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온풍기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겨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공사비는 약 1,200 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성탄절 전에 공사할 수 있다면 겨울 학기를 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브리를 사랑하는 관심있는 회원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농협중앙회 249-01-205546 (예금주 라브리선교회)
대표전화 : 033-673-0037